

광주 AI 컴퓨터, 세계 슈퍼컴퓨터 톱500 정식 등재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육·연구용 구축 美 슈퍼컴퓨팅 콘퍼런스서 178위 AI데이터센터와 시너지 효과 기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내에 구축한 교육·연구용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HPC-AI) 기반 공용인프라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톱500'에 정식 등재됐다.

27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지난 13-18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개최된 슈퍼컴퓨팅 콘퍼런스(SC22)에서 세계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 순위 매기는 TOP(톱)500 순위가 새롭게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내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공용 인프라 드림(DREAM)-AI(꿈꾸는 AI)가 HPL(고성능 린팩·High Performance Linpack) 기준으로 3.18 페타플롭스(PF)를 기록해 세계 랭킹 178위에 등재됐다.

이번 톱500 순위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슈퍼컴퓨터는 총 8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드림-AI를 비롯한 삼성종합기술원의 SSC-21(18위)와 SSC-21 스케일러블 모듈(349위), 기상청의 구루(GURU)(35위)와 마루(MARU)(36위), SKT의 타이탄(92위), 소프트웨어(SW) 업체인 MKO의 NOK1(473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드림-AI 등재에 따라 국가별 슈퍼컴퓨터 보유 대수



광주과학기술원 슈퍼컴퓨팅 센터 내에 구축된 DREAM(드림)-AI 슈퍼컴퓨터.

순위도 8위로 올라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HPC-AI) 기반 공용인프라' 사업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운영 중이다. 고성능 컴퓨팅(HPC)은·고급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 슈퍼 컴퓨터 또는 컴퓨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용 HPC-AI 공용 인프라의 완성도 높은 검증에 의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인공지능 융합대학 및 산·학·연에서 교육·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한 HPC 기반의 컴퓨팅·네트워크와 스토리지, 공간구성, 개발환경 등을 제공한다.

광주과학기술원 내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공용 인프라 드림-AI 슈퍼컴퓨터는 6.4페타플롭스(PF) 최대치 연산량, 올플래시 1페타바이트(PB)를 포함한 10페타바이트(PB) 저장공간과 200기가바이트(GB) 초고속 패브리 네트워크를

연결해 제공한다. 1페타플롭스(PF)는 1초에 1000조번 연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광주과학기술원 내 HPC-AI 공용인프라라는 광주 인공지능 융합대학 협력을 통한 교육·연구용 AI 컴퓨팅 지원과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한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HPC-AI 컴퓨팅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융합연구·교육·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구축한 교육용 HPC-AI 공용인프라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초 완공 예정인 AI 집적단지 내 20PF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HPC)과 68.5PF 규모의 GPU 클라우드 혼용 방식으로 구축되는 AI데이터센터와 함께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첨단3지구(4만7246㎡)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9억원이 투입돼 AI 융합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데이터센터 등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I 집적단지 핵심 인프라 시설인 AI데이터센터는 전체 88.5PF 컴퓨팅 자원 중 20PF는 고성능 컴퓨팅(HPC) 전용으로 구축하고, 나머지 68.5PF 규모는 GPU 클라우드 혼용 방식으로 구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관광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광주시와 광주관광협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현장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행사 등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학숙체험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은 광주 문화관광의 현재와 미래, 광주 관광 발전방향,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노동법, 세법, 회계, 온라인(SNS)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4명이 수료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2회 추가 운영한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광주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매력적인 신규 관광자원 확충, 글로벌 대표축제 육성, 특화관광 활성화, 여행하기 편한 광주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희망가득 김장 나눔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6일 광주김치타운에서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누미 봉사단과 주거취약계층 초청 세대 등 50명이 참가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가득 김장단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주거복지센터 in(인)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슬로건 아래 주거 취약계층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유대감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 광주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종합주거복지센터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민에게 주거복지상당을 비롯한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안내, 주거비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이세웅 주거정책팀장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알록달록 뜨개옷 입고 따뜻한 겨울 나렴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광주시 서구 삼우대로의 가로수 100주에 시민들이 직접 털실로 뜨개질한 수목보호덮개 300개를 돌려주는 '그래피티 니트'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12월까지 식당가·대학교 주변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년회, 크리스마스 행사로 식당가, 대학교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자치구 10개 반 38명, 민간유역반 14개 반 37명 등 7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상무지구, 용봉지구, 첨단지구 등 식당 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 상업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점검한다.

대상은 겨울철 보행 사고를 대비한 불법 입간판, 전단, 풍선광고물, 미신고 및 기한 초과된 가로등 현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대상 불법 홍보물, 아파트 분양홍보 등 대량 게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365정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활동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박금희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연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불법광고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광주시, 올해 77곳 선정 홍보·종량제봉투 등 지원

광주시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2022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77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해마다 현장조사, 심의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23곳과 지난해까지 선정된 곳 중 재평가를 통해 54곳을 재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1년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 현판 부착,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장 홍보도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영업이 힘든 상황에도 지역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